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Pontifical Foundation of the Catholic Church, Aid to the Church in Need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 100-031-121620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제 6호 · 2016.10



로마를 방문한 소녀, 교황님 품에 안기다.

“가정은 타인과의 관계,
타인에 대한 경청과 공감,
인내와 존중,
그리고 서로 간의 도움과
공생을 배우는
최초의 장소입니다.”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276항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9월 4일, 로마에서 우리 시대, 이웃사랑의 상징과 같은 인물인 마더 데레사 성녀님의 시성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의 설립자, 베렌 프리트 판 슈트라텐 신부님께서서는 1959년 인도를 방문하고 마더 데레사 성녀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는 마더 데레사 성녀님께서 ‘가장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하신 “사랑의 선교 수녀회”가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이들의 성녀”로 추앙받는 마더 데레사 성녀님을 모르는 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1985년 당시 UN 사무총장은 총회 전에 마더 데레사 성녀님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과연 말로 이 분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저보다,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이란 것을 겸손하게 말하면서 그분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 분이 바로 진정한 UN(국가 연합)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이 분은 바로 세상의 평화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평화의 실천이라고 성녀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날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증오와 살인, 불만족이 만연합니다. 가정 내에서의 사랑과 평화, 기쁨의 세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님께서 슬픔에 잠겨 말씀하셨습니다. 성녀님께서 가족 내 사랑의 부족과 친밀감의 결핍을 빈곤과 가난과 같이 큰 문제로 여기시고 투쟁하여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은 온정, 용서, 서로 간의 존중, 신의, 희생의 자세를 가정 내에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 가치들이 없다면 세상에 평화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의 안녕은 바로



사랑의 실천은
바로 평화의 실천입니다.
이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의 안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 가족들, 공동체 구성원이나 직장 동료들과 가장 먼저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님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확신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가정을 ‘이해’와 ‘존중’ 그리고 ‘배려’라는 세 가지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행동

으로 이 기본적인 사랑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일상에서 마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 상처 받기가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더 데레사 성녀님께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정에서 하느님을 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서로를 위한 시간도 결코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느님의 영광의 씨앗이, 또 이웃을 위한 평화와 형제애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마더 데레사 성녀님께서 ACN 가족 여러분께 전해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희생 정신이 없었다면 ACN의 이웃 사랑 실천은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드리며,

마르틴 바르타 신부
국제 ACN 지도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따라, 이라크의 그리스도인 난민들에게 여러분의 자비를 보여 주십시오!

이라크 북부 모술(Mosul)과 니네베(Nineveh) 평원 지역은 그리스도교가 태동했던 1세기부터 현재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르며 신앙을 이어 온 곳입니다. 이 지역 전체에 자칭 “이슬람 국가”(IS)라고 하는 극단주의 집단 داع시(Daesh)가 테러를 자행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 여름, داع시(IS)는 야지디족 등 소수 집단인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하여 소위 “성전”을 일으켰습니다. 집을 약탈하고, 성스런 고대 유적들을 방화하였으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조직적으로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모술의 형제자매들은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교향을 떠나든가, 죽음을 선택하여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르빌의 칼데아 가톨릭 지도자이신 바샤르 마티 와르다(Bashar Matti Warda) 대주교님, 저희 ACN, 로마 가톨릭의 우애 공제회, 그리고 기타 국제 단체들은 힘을 합쳐 올해 초에 이 끔찍한 사건을 “현대의 학살 사건”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교 가정들이 국내 난민이 되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피난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와르다 대주교님은 난민들에게 식량, 숙소, 의약품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시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배고픈 난민들이 다시 식량을 찾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와르다 대주교님의 가장 큰 후원자는 바로 세계 곳곳에서 살고 있는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의 가족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가족 여러분의 도움으로 수많은 이라크 국내 난민 가정들에게 식량 꾸러미, 곧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 줄 기본적인 생존 필수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학적 치료, 의약품을 제공하며 집이 없는 이들에게 임대료도 제공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ACN 자비 캠페인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되자”(Be God’s Mercy)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시어, 미화 11만 달러(약 1억 2,300만 원)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교황님의 기부금은 ACN을 통해 와르다 대주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라크 아르빌의 성 요셉 병원에 전달되었습니다.

와르다 대주교님께서 중동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맞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교육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저는 올 여름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극단주의 무슬림들에게 납치당했다가 풀려나시고, 현재는 와르다 대주교님과 활동하고 계시는 더글라스 바지(Douglas Bazi)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신부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우두머리들만 있을 뿐, 진정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사실 구세대에게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청년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젊은 세대를 보호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옆면에서 이어집니다.)





칼데아 가톨릭 아르빌 대교구장
바샤르 와르다 대주교님



▲ 이라크 그리스도인 IDP(국내 난민)
지원 및 재건 프로젝트 보고서 요약본

‘이라크 교회를 위한 특별 미사
그리고 강연회’ 포스터 ▶



와르다 대주교님과 ACN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아르빌에 학교를 설립하였고, 가톨릭대학교도 세웠습니다.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난민들이 삶의 변화를 위해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박해받는 곳이나 신앙적, 물질적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전 세계 22개국 지부에서 후원을 받아, 140여 개국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지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ACN KOREA의 이사장 자리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와르다 대주교님께서서는 최근 전 세계의 ACN 가족 여러분께 보낸 서신에서, “여러분의 자비 덕분에 이곳 아르빌의 수많은 난민들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ACN은 2014년부터 아르빌 대교구의 프로젝트에 대략 미화 1,000만 달러(약 110억 원)를 지원했습니다.

저희 ACN 한국지부는 이라크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한국 신자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바샤르 와르다 대주교님을 초청하여 2016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방문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10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명동대성당 대성전에서 염수정 추기경님과 와르다 대주교님께서 이라크 교회를 위한 특별미사를 공동으로 집전해 주실 것입니다. 미사가 끝난 후 작은 강연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디 친히 참석하시어, 와르다 대주교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ACN의 가족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그날 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요하네스 콜라우자

ACN 한국지부장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좌측부터)
국제 ACN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님과
시리아 홈스대교구장 장아브도 아르바흐 대주교님

박해받는 시리아 교회를 위해

절두산 순교성지에서는 병인순교 150주년을 맞아 지난 1월부터 성지 평일미사 중 봉헌을 시행하여 ACN 한국지부에 시리아 교회를 위한 봉헌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에서 박해받는 교회에게’라는 성지 사목목표를 정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전해 주신 정영정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신 원종현 주임신부님과 모든 순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시대에 전하는 복음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려 줍니다. 고통, 사랑, 미움, 겸손, 오만, 성욕, 배고픔, 탐욕, 배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인간을 마음을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서는 어떻게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또 죽을 수 있는지 알려 줍니다. 교리문답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모아 놓은 축약본으로서, 말하자면 '인생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실존적 위기와 사회적 격변으로 삶의 가치가 위협받는 우리 시대의 여러 나라에서 긴급히 필요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 심각한 생필품 부족현상, 폭력사태 증가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회는 모든 방도를 동원해 최선을 다해 젊은이들에게 평화를 촉구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희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 책자를 배포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는 가톨릭 청년 교리서 「YOUCAT(유캣)」을 주로 이용하여 사목활동을 진행합니다.

베네수엘라 북동부 카루파노(Carúpano)의 하이메 호세 비야로엘(Jaime José Villarroel) 주교님께서는 ACN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린이 성경이나 묵주기도 책은 이미 구비되어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적절한 교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재 사회적 위기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또한 신앙의 위기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교리교사들과 함께하는 청년과의 만남에서 「YOUCAT(유캣)」을 배부하고자 하십니다.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교리서를 인쇄하였지만, 지금은 베네수엘라를 강타하는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 현상으로 종이마저 구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ACN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교님과 이웃 교구들에 1만 부 이상의 「YOUCAT(유캣)」과 「YOUCAT 고해성사」 그리고 「YOUCAT 견진」을 전달하였습니다. 33개 본당의 기도 모임과 신앙 나눔 모임 청년들에게 분배될 예정입니다. 이 활동을 위한 인쇄와 운송 비용으로 43,540유로(약 5,500만 원)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교회는 이미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용기 있는 이들의 노고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베네수엘라인들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어린이 성경을 가진 카루파노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이제 <YOUCAT(유캣)>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자비로」

고향으로, 자비하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온 아들.

이 책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위한 기도서입니다. 브르흐보스나(Vrhbosna) 교구와 바냐 루카(Banja Luka) 교구는 내전 후 고향에 머물렀던 이들이나 전장에서 돌아온 이들, 모두에게 희망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서는 사람들이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6천 권(권당 약 2유로)을 발행하여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 복음화를 위해

말라위의 카롱가(Karonga) 교구는 최빈지역에 속합니다. 포장 도로, 구급차 등은 찾아볼 수 없고, 학교도 드뭅니다. 5명 중 3명은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중 1월에서 4월까지가 고비로, 사람들은 혹독한 보릿고개를 견뎌야 합니다.

가난은 악습을 부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어린 딸을 나이 많은 부자 남자들에게 시집을 보내는 쿠림비라(Kupimbira)라는 문화적 관습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13살 마리아는 친아버지에 의해 이웃의 78세 노인과 강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을 통해 이러한 전통에 대해 “복음의 도착화를 위해서는 문화의 복음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모든 문화와 사회집단은 평화와 성숙이 필요합니다.”(69항)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복음으로 문화를 평화할 수 있습니다. 말라위의 카롱가 교구는 자비의 희년을 맞아 이 문화 복음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역 가톨릭 신자들은 이단의 모임들을 방문하는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역에는 일부다처제, 마녀에 대한 믿음, 미망인 유산 갈취, 알코올 남용 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종종 혈족이나 가족 간 수십 년 간의 갈등을 야

기하곤 합니다. 교회는 가족 간 화해와 만남, 미신에 대한 계몽 등을 가장 우선으로 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물론 직접적 원인인 가난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인류라는 가족의 평화는 각 가정에서 가장 먼저 자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CN은 평화와 화해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젊은 교구에 우리의 일치와 관심을 표하였고, 7,900유로(약 990만 원)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자연에서 맞이하는 화해의 만남.
그곳이 식탁이든 나무 밑이든,
그곳이 어디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을 위해! 여름 수련회

미얀마 청년들은 약물, 인신매매, 빈곤 등 수많은 악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미얀마에는 어디서나 빈곤이 만연합니다. 특히 가톨릭 가정에서 더 그러합니다. 빈곤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끊임 없이 이사를 다니고, 이로 인해 더욱 빈곤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타웅기(Taunggyi) 대교구는 이 악순환을 막고자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타르치시오(Tarcisio) 신부님은 “아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에 관해 배우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기회가 거의

자신과 가족 그리고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개 본당의 300여 명의 아이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빈곤은 희망을 앗아갑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며, 여러 수업을 받을 뿐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경험을 한 후 이미 여러 아이들이 교화되었습니다. 이들은 버마의 교회의 굳건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웅기대교구는 지난해 7,150유로(약 880만 원)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수련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ACN은 지원을 약속하여 이런 안타까운 사태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작은 도움으로도 큰 효과를

아프리카는 현재 인구 증가가 가장 급격히 진행되는 대륙입니다. 이런 추세로는 2050년 세계 그리스도인 10명 중 4명은 아프리카인이 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는 미래의 세계 종교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가장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가나는 인구의 절반이 16세 이하인 어린 나라입니다. 가나 북부 옌디(Yendi) 교구는 가나 국내 평균보다도 더 빠른 인구 증가율을 보입니다. 이 교구에 가장 지배적인 종교는 이슬람이고, 이어 여전히 자연숭배 사상과 토속신앙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소수집단에 속합니다. 이 지역에서 남자들은 대부분 들에서 농사를 짓고,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는데, 전기도 책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빈센트 소와 보이나이(Vincent Sowah Boi-Nai) 주교님께서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교 교육을 더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십니다. 가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뿐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위한 교육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종교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주교님께서는 교리 교사들과 여러 분당 관계자들과 함께 500명의 청년들을 위한 2년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이단과 소비사회의 유혹을 물리치고 약물 사용을 거부하며 학교 교육에 정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청소년 임신율 감소, 미성년 범죄 예방, 건강한 자존감 발달 등을 위해 힘씁니다. 말하자면 인성 교육을 통해 미래에 길을 여는 활동입니다.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이웃 사랑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특히 정직, 충실, 희생, 연대의 미덕을 배우며 기도와 도움을, 그리고 가톨릭 신앙의 기본을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그들은 신앙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빈센트 주교님은 확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을 위한 선교는 청년들을 통하여 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합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가정과 그리스도 공동체 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사랑의 기쁨」 279항)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따라 인성의 통합적 교육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소요 비용에 비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800유로(약 600만원)로 이렇게 큰 선을 일굴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시작

쿠바 정부는 60년 간의 공산주의 끝에 개방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황폐화의 영향은 아직도 계속됩니다.

이곳 산타클라라(Santa Clara) 교구의 교리교사들은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최근 어린이들에게 하느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N 어린이 성경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활동에 좋은 매개체 되기 때문에, 쿠바 주교회의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ACN은 16,740유로(약 2,100만 원)의 비용으로 어린이 성경 18,000부를 쿠바 교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한편 ACN 어린이 성경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는 지금까지 18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5,190만 부가 발행되었습니다.

통합적 인성교육.
기도하고 배우며,
지식을 쌓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사랑으로

서구 언론으로부터 이토록 배척을 당하며 ‘피임약 금지’라는 언급 하나만으로 평가절하되고 조롱당한 문서는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1968년 혼인과 인간 삶에 대해 언급한 바오로 6세 교황님의 회칙 「인간 생명」(Humanae Vitae)은 “인간 안에서 당신의 사랑의 계획을 실현하십시오” 하느님을 통해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간결하고 명료하면서도 총체적으로 보여 준 예언자적 문서입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자연적인 가족 계획을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이미 짐바브웨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는 세계 최빈국에 속한 아프리카 국가로, 혼란한 정치상황과 불투명한 미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부부들은 자녀 수를 책임감 있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불라와요(Bulawayo) 대교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자들에게 자연가족계획법(NFP)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과학적인 방법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책임자인 아기 예수의 수녀회 알폰사 타페레르와(Alphonsa Tapererwa) 수녀님께서는 교회의 가르침이 자연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간 특성에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연 가족 계획은 성경을 따르는 인간상이 성적 문란이 만연한 우리 시대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라고 수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 젊은이들은 자신의 신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배우게 됩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가족계획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며 여성 신체 기관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지식, 인위적 피임의 영향, 약물 복용의 결과, 에이즈 예방법, 빌링스법(점액관찰법), 성욕을 다스리는 법,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법, 갱년기 증상, 가족이나 부부생활에서 중요한 가치 등 실제적인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 모든 주제의 공통점은 바로 사랑과 삶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부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인간적 완성’, ‘완전함을 위한 사랑’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이 사랑은 부부가 서로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나누며 인격적인 친밀함의 특별한 형태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랑입니다(「인간 생명」 9항 참조).

빌링스법(점액관찰법)은 가족계획을 준비하는 여러 가정에 작은 혁명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을 뿐더러, 인위적 피임법보다 더 효과적이며 자기 절제를 이끌어 주고, 무엇보다 여성을 존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알폰사 수녀님과 동료들은 올해 말까지 교구의 20개의 본당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용, 교제, 강의 자료 등의 비용은 3년에 21,000유로(약 2,6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교구에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적 삶의 지속과 관련된 문제는 생리학적, 심리적, 인구 통계학적, 사회학적 시각에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총체적 인간에 주목해야 하고, 그 자연적이고 지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인간 생명」 7항)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끌고 계시는 알폰사 수녀님



이웃 사랑의 모범

9월 4일,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마침내 성인의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통한 자기 헌신으로 온 생애를 보내셨고, 이 자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두에게 보여 주신 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이후, 자비란 타인에게 수동적으로 공감을 느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타인을 돌보며 그의 불행을 감해 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뜻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녀님은 모두의 모범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실천하는 자비의 모범이셨던 ACN 설립자 베네프리트 신부님께서서는 마더 데레사 성녀님과 일생에 걸쳐 독독한 관계를 유지하셨고 인도에서 성녀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빈곤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라는 성녀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에게 끝없이 베푸는 삶을 살며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Johannes Freiherr
Heereman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곳이 라면 어디나 임하십니다. 저는 자비의 희년을 맞이하여 ACN 활동의 개시를 위해 교황님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자비에 관한 주제를 대하실 때 그분의 눈은 생생하게 빛났습니다. 섬광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교황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비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두 팔이 얼마나 넓게 열려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 오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황님은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한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깊은 진리를 훌륭하게 정의하셨던 전임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뜻을 이으시며, 어떻게 이 사랑이 인간에게 전해지는지 알려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기 스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에는 일상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황님 뒤에 서서 자비를 향한 열망을 이 세상에,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전해야겠습니다.

Johannes Heereman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의무가 아닌 사랑

보통 저는 〈사랑의 메아리〉를 주방 정리함에 넣어 둡니다. 4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통 읽지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명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단지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번 〈사랑의 메아리〉를 훑어보며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사랑 없이 후원금만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랑의 메아리〉를 손에 들고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한 단을 바칠 때마다 기사를 한 개씩 읽었어요. 기도하는 동안 저는 제가 읽는 기사 속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사랑의 메아리〉 다음 호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주의 후원자

순교자들의 투철한 신앙

저는 이라크의 순교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작은 희생이라도 하고 싶어요. 악의 세력에 의해 테러와 죽음을 당하는 무고하고 저항할 수 없는 이들의 투철한 신앙의 기적이 그들을 위한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가해자들을 위해서도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예상치 못한 수입을 보내며

연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네요. 저는 이 돈을 여러분께 보냅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쓸모 있게 쓰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교황청
재단



www.churchinneed.or.kr

[/aidtothechurchinneed](https://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acn_korea](https://www.instagram.com/acn_korea)

전화 02)796-6440 | 팩스 02)796-6439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 운영시간 평일 9~18시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단법인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